

굴욕적인 한일수교를 반대한

바람이 분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 우리나라 노래의 역사에서 반외세의 주제는 그다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국내의 비민주적 상황이 더 절실하게 와 닿을 때가 많았고, 그에 비해 외세의 문제는 머릿속 관념적 추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형상성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작

품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불려진 <바람이 분다>는 이른 시기 민중가요 중 반외세 의식을 보여 준 대표적인 노래이다. 지은이가 불명확한 채 구전되어온 이 작품은 가사와 악곡이 각 시기나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당시 필자가 불렀던 것을 기준으로 가사를 보면 이렇다.

외세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1절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화운동에서 반외세의식은 반일의식이 주도하고 있었다. 해방 후 불과 한 세대 정도가 흐른 시기이니 식민지 강점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분단과 6·25를 겪으면서 반미의식은 곧 용공의식과 동일시되어 감히 입 밖으로 말을 내기 힘들었던 때라 대중적 지지도 받기 힘들었다. 알려진 것처럼, '반미의식'은 1980년 '5월 광주항쟁'이란 역사적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는 격심한 반일데모의 시대이기도 했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1965년 한일관계정상화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쿠데타 세력이었던 김종필이 군정시기부터 비밀리에 대일 협상을 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 3월 협상타결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3월 6일에 모든 야당은 단합하여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3월 하순에는 8만 명의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차원의 저항은 이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로부터 대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6월 3일에 경찰력을 압도한 학생들이 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에 정권은 비상계엄선포, 휴교령, 신문검열, 시위가담자 구속처벌 등 초강경으로 대응하였었다. 이것이 '6·3사태'이다.

1965년, 강한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일국교정상화는 이루어졌다. 그 해 6월 22일에 한일협정은 조인되었고, 8월에 여당만의 단독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었다.

이 노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6·3 데모 때부터 불려졌는지 1965년경부터 불려졌는지 아니면 한일협정이 다 끝난 후에 비로소 탄생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대학을 다닌 몇몇 사람들은 그 시기의 대표적인 노래로 <해방가>와 <농민가>, 그리고 놀랍게도 <삼일절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다. 삼일 만세운동을 기리는 <삼일절 노래>야말로 굴욕적인 한일수교를 반대하는 시위에 잘 어울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선열하 이 나라를' 이후의 마지막 부분이 '큰 감동'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바람이 분다>는 정확한 생성연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1960년대 중반 엄청난 반일데모의 바람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첫 구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현해탄에서 불어온다'란 구절이 이 시대의 느낌을 매우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패전으로 현해탄 건너 물러갔던 일본이 다시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민족적 경계심이 첫 구절부터 선명하다.

가사만 비교해 보아도 이 노래는 개인 창작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적층적(積層的)으로 형성된 노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요처럼 고정된 틀을 여러 절에 걸쳐서 몇 단어를 바꾸어가며 부르

는 노래인 것이다. '바람이 분다, ○○○에서 불어온다, ○○○ 대사관에 불이 붙었다, ○○○은 ○○○만 돌린다'의 흐름이 각 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손뼉을 치면서 함께 부르며, 반복되는 의미가 선명하여

쉽게 기억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절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짐작컨대 처음 만들어진 때에는 1절만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노래를 부르다 보니 우리 민족을 못 살게 구는 외세가 일본만은 아니니까 미국과 소련을 뒤에 넣었을 것이다. 1970년대 김지하의 <오적>이 나온 이후에는 간혹 '동빙고 오적촌에 불이 붙었다', '오적놈은 골프채만 돌린다'의 가사로 된 4절을 부르기도 했는데, 이러한 덧붙임은 바로 민요적인 개방 구조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개인 창작의 산물이 아니므로 노래를 향유하는 집단이 지닌 욕망이 검열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드러난다. 쪽발이, 게다짜, 양키놈, 로스께 등 거침없이 드러난 비속어는 물론 '물이 있어도 안 끈다', '소방대원은 휘발유 뿌린다'의 유치하고 장난스러운 악담은 도덕적 이성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말에서 오는 유쾌한 해방감을 경험하게 한다. 악곡도 '잘 탄다 잘 탄다 신난다 신난다' 부분에서는 별다른 선율 없이 리듬만 타면서 말로 소리를 지르며 부르게 되어 있어, 억눌린 분노를 악담으로 적절히 표했다.

“도덕적 이성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유쾌한 해방감을 경험하게 해”



이영미
61년 서울 출생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저서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노래이야기 주머니」,
「재미있는 연극 길라잡이」 등